


춘천 구도심여관촌 활성화를 위한 도전!

동네방네협동조합 이야기





더 이상, 여행자가 찾지 않는 춘천 구도심 여관촌

춘천 구도심 지역에는

30여개에 달하는 여관/여인숙 등 오래된 숙박시설들이 숙박촌을 형성하고 있다.

대부분의 숙박시설은 일용직 노동자와 무주택자의 달셋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
또 상당수 숙박시설은 문 닫은 채 방치되고 있다.

더 이상 여행자가 찾지 않는 곳, 낡고 오래되어 ‘후졌다’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곳,
우리는 이 곳에서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보았고, 그렇게 시작했다.

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는
구도심 여관촌에서
지역재생의 가능성 확인

지역
접근성

춘천역 도보 10분, 버스터미널 차량 5분 등
수도권 교통연결망과의 지리적 접근성 우수

교통
편의성

지역교통의 중심(허브)인 중앙로를 끼고있어 시내버스
를 이용한 지역 관광지 접근이 용이함

숙박시설
특성

대부분 숙박시설이 2~3층의 복도식 건물이며,
독립형 객실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짐

이용
타겟층

도심 내 위치한 숙박시설이면서,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
려하는 타겟층은 누구일까



봄N게스트하우스

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한 근화동 여관촌의 비선여인숙!

춘천을 찾은 젊은 여행자들에게 손꼽히는 숙소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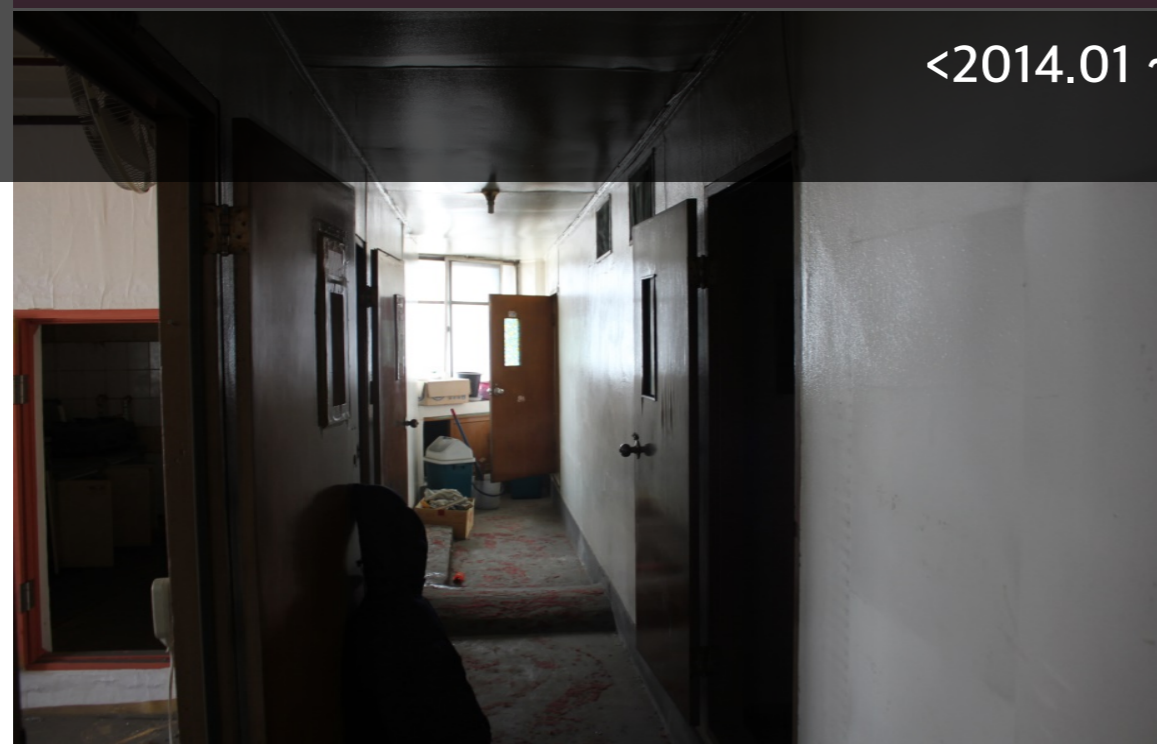
연간 4,000명 이상이 찾는 곳으로 성장하였다.

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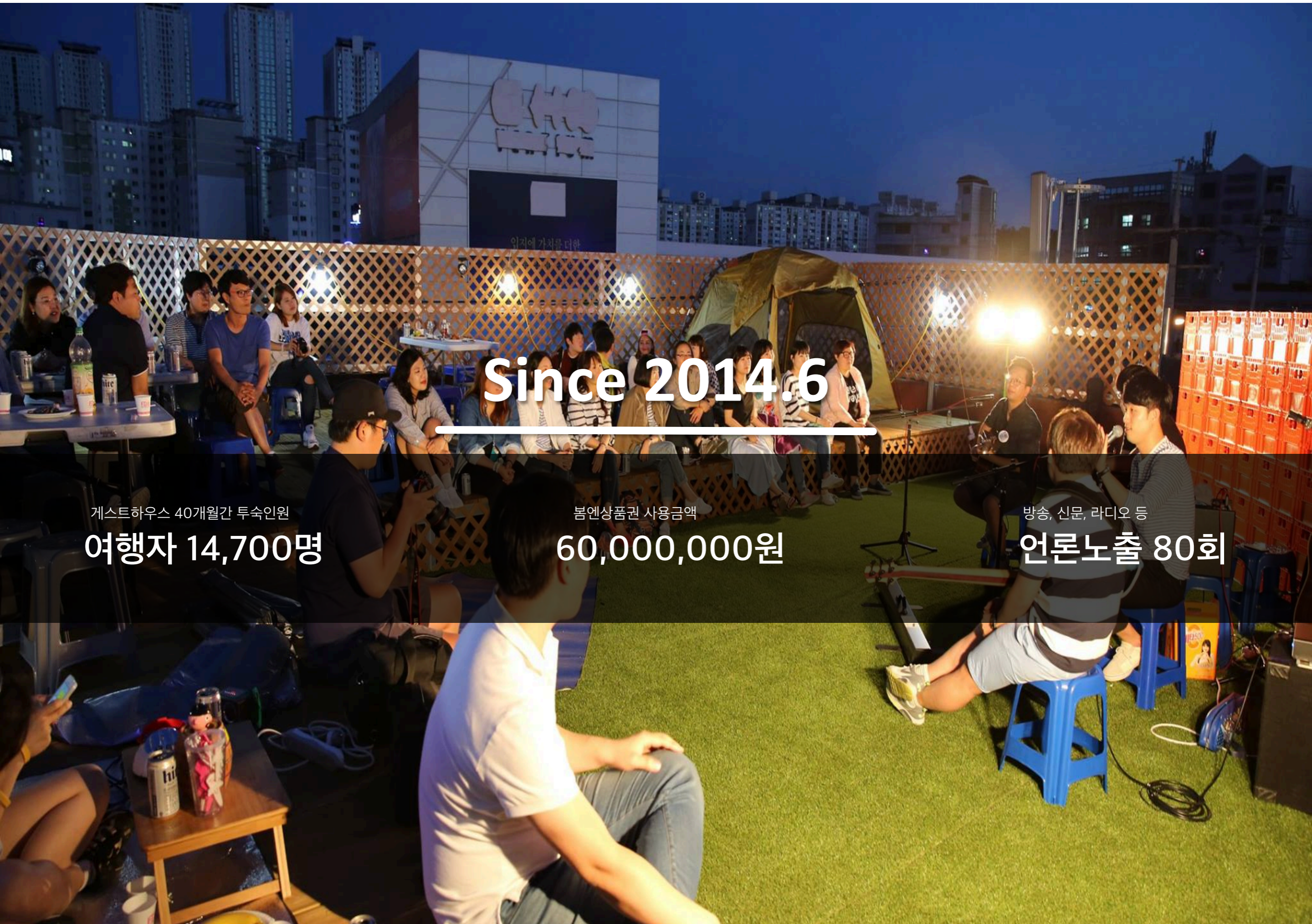


청년들의 게스트하우스 만들기 프로젝트!!

<2014.01 ~ 2014.06>







Since 2014.6

게스트하우스 40개월간 투숙인원

여행자 14,700명

봄엔상품권 사용금액

60,000,000원

방송, 신문, 라디오 등

언론노출 80회



<효자동 마을밥집>



<중앙시장 상인라디오>



<주민커뮤니티 교육>



<번개시장 생활사박물관>



그래서,
지역을 재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
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?

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!!





감사합니다.